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1년 12월 17일(금)
--(윤력 11월 14일)--
Пятница
17 декабря 2021г.
№ 48 (11965)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사할린주 정부청사 앞에 설치된 주요 새해 울카.

(이예식 기자 촬영)

사할린주, 2022년 근로자 최저임금에 대한 3자 협정 체결

사할린 주지사 왈레리 리마렌코, 사할린주 노동조합연맹 알렉산드르 코즈노브 회장, 사할린 지역 기업주 및 사업가연맹 콘스탄틴 수호레브리크 회장이 2022년 최저 근로임금에 대한 협정을 체결했다.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우리의 주된 과제는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우리는 주의 노동조합원들과 고용주들과 협력 속에 이 과제를 공동으로 해결해 가고 있다. 체결된 협정은 우리 주민들에게 사회적 보호막을 채감하도록 할 것이며, 지역의 고용주들이 지급해야 하는 최저임금 보장이 확립되었다."고 말했다.

2022년 1월부터 사할린주의 최저 근로임금이 8.6% 인상된 가운데 거주 지역에 따라서 2만9천411루블리부터 3만9천214루블리가 된다.

근로자 최저임금 2만9천411루블리 - 알렉산드롭스크 사할린스키, 아니와, 돌린스크, 코르사코브, 마카로브, 네웰스크, 포로나이스크, 스미르니흐, 토마리, 티몐스코예, 우글레고르스크, 흠스크 지역 및 유즈노사할린스크.

3만6천413 루블리 - 노글리키 및 오하 지역.

3만9천214루블리 - 쿠릴스크, 세웨로쿠릴스크, 유즈노쿠릴스크 지역.

사할린주는 극동지역에서 유일하게 러시아 연방에서 규정한 근로임금 지급에 따른 근로자 최저임금 보장 인상에 협정을 체결한 지역이다. 사할린 지역에서 세부 문서 협정 체결은 주지사의 주도로 지난해부터 재개되었다.

사할린주 교육부, 학교들에게 12월 27일부터 원격 수업 권고

사할린 지역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 상황이 지속적으로 불안정하게 나타남으로 해서 사할린주 교육부는 모든 교육기관이 수업일정을 조정하여 12월 27일(월)부터 1학년 -11학년까지 전 학년의 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12월 14일(화) 기준 주내 6개 학교에 8

개 학급의 학생 209명이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 이는 학생들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이들과 접촉으로 인해 러시아 소비자보호감독청의 권고 지침에 따라 이뤄졌다.

7개 지역의 101개 학급이 독감으로 인해 휴업 상태이며 독감에 걸린 학생은 25%가 넘는다고 사할린주 교육부가 전했다.

사할린의 높은 물가상승을 바탕으로 최저생활비도 상승

사할린주 정부는 2022년 다양한 범주의 주민들을 위한 최저생활비의 규모를 조정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지시로 채택된 해결책으로서 치솟는 물가상승을 바탕으로 대통령은 연방차원에서 최저생활비를 추가로 증액할 것을 지시했다.

사할린과 쿠릴열도에서는 2022년 최저생활비가 지난 8월에 확정되었다.

주민 1인당 최저생활비는 1만6천252루블리로 책정됐고, 서비스와 기초식품세트가 평균보다 가격 상승함에 맞추어 근로능력이

있는 주민에게는 1만7천715루블리, 아동에게 1만7천733루블리, 연금수급자들에게는 조금 낮은 1만3천977루블리로 책정됐다.

혹독한 물가인상의 실제 지표를 고려해 각 범주에서 1천 루블리를 증액하기로 한 가운데 평균 최저생활비는 1만7천209루블리까지, 근로 능력이 있는 주민들에게는 1만8천758루블리까지, 연금 수급자들에게는 1만4천800루블리까지 올랐다.

아동 대상으로는 상승이 느린 관계로 250루블리만 증액됐다. 아동의 최저생활비는 1만7천922루블리로 책정됐다.

새고려신문

2022년 상반기 신문 구독 마무리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2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이 곧 마무리될 것이라고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6개월 구독료는 557루블리 04코페이카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단신

사할린주 소수민족 원주민 발전의 새로운 협력 계획 체결

12월 15일 모스크바에서 사할린주 주지사 왈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에너지'회사 사장 로만 다쉬코브, 사할린주 소수민족 원주민 전권대표협회 지역 대표인 류드밀라 크랍추크가 제4차 사할린 북방 소수민족 원주민의 5개년 개발 협력 시행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안에는 사할린주에서 소수민족 원주민의 안정적 발전을 토대로 하는 북방 소수민족 원주민의 전통적인 사업 종목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사할린, 주요 울카 점등식 취소

유즈노사할린스크 주민들을 위한 새해 주요 행사 중 하나인 주 정부청사 앞의 울카(성탄 트리) 점등식이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었다고 주 문화부가 전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팬데믹 발생과 방역 상황의 어려움과 관련하여 러시아 소비자보호감독청의 권고 지침에 따라 취소되었다.

체호브 센터와 사할린 인형극장이 주민들을 위해 공연을 준비하고 있고, 새해 맞이 기간은 12월23일 부터 시작된다. 방역 수칙 준수가 요구되는 가운데 2021년 12월1일부터 주지사의 령으로 실외 대규모 행사가 금지되는데 단, 사할린주 스포츠 및 문화 행사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스포츠나 체육 행사는 예외다.

사할린에서 청년 연극 축제 열려

'12월의 저녁' 청년 연극축제 개막식이 사할린 국립대학교에서 열렸다.

축제는 1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사할린 국립대학교에서 열린다.

올해는 코르사코브, 유즈노사할린스크, 포로나이스크에서 온 연극단들이 축제에 참석하는 가운데 12월 17일까지 경쟁 및 비경쟁의 연극들이 상연되며, 유명 심사위원의 활동교실도 열리고,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에서 문학 퀴즈대회 및 시 낭독이 진행된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참전용사 와실리 코피셰브 기념비문 개막

12월 15일, '트리움프(대승리)' 바이에슬론 스키 단지에서 대조국전쟁 참전용사이자 소련의 명예 스포츠 명인, 명예 축구협회 회원인 와실리 코피셰브(1926.12.15 - 2019.09.05)의 기념비문 개막식이 거행됐다.

1945년 와실리 코피셰브는 일본 군국주의로부터 사할린과 쿠릴 해방 전쟁에 참전하여 '붉은 별' 훈장, '참전 공로', '대일본 승리의 메달'을 비롯해 많은 훈장과 메달을 받았다.

1965년부터는 훈련 강사로서, 알파인 스키와 바이에슬론 스키 훈련 강사로 종사, 13명의 소련 스포츠 명인을 양성했다.

전채련 할머니: "꿈에 소원하던 조국에 와서 행복합니다"

조국에서 단 8년, 타지에서 82년의 세월!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올해 공식 영주귀국은 끝났다. 일부 영주귀국자들은 아직 격리 중이고 대다수는 이미 임대아파트에 입주하였다. 새 곳에 정착하느라 이들은 매우 바쁘다. 새 집에 필요한 가구, 그릇, 가전 제품 등을 구입하고, 국적 허용에 요구되는 서류와 문서 준비로 연말연시를 보내게 된다.

연수차 한국을 다녀간 필자는 사할린에 돌아가기 전날, 지난 10일, 안산 고향마을에 입주하신 전채련 할머니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았다.

1939년, 어머니와 오빠를 따라 8살이 되던 해에 사할린에 오신 전채련 어르신은 지난달 27일 마침내 영주귀국하셨다. 지난 8일에 그는 만 90세를 맞이하셨다. 필자가 작은 꽃바구니를 선사하니 할머니는 무척 좋아하셨다. 이번에 생신이라 안산 고향 마을 노인회에서 꽃다발을 받았다고 자랑하셨다.

여권에 적혀있는 어르신의 공식 이름은 니시오 따요꼬이고, 러시아 이름은 타치아나(타냐 할머니라고 자주 부른다)이고, 태어났을 때 지어진 이름은 전채련이다. 이제 한국 국적의 절차를 밟으면서 자신의 본명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시다.

새고려신문사 사원들은 이분을 항상 '전채련 어르신' 또는 '전채련 할머니'라고 부른다. 전채련 할머니는 우리 신문의 소중한 애독자이다. 해마다 신문 창간일(6월 1일)에 신문사로 전화를 하여 한민족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사원들의 행운과 건강을 빌어주셨다. 최근에는 귀가 좀 어두워져서 전화로 축하를 하시고, 신문사 측에서 하는 건승 얘기는 듣지 않고 금방 전화를 끊으신다.

전채련 어르신은 단순한 애독자가 아니다. 감사를 아주 잘 표현하는 사람으로서 주한인협회,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협회, 본사 등에 대한 글을 비롯해 신문지상을 통해 여러



번 실은 적이 있다. 그리고 사할린동포의 문제, 운명에 대한 글을 가끔 투고하기도 하셨다. 특히 2019년에 어르신이 새고려신문 70주년 기념 글짓기에 보내온 가라후토 시대의 가족 이야기(«사할린에서 타향살이 80년, 우리 가족 역사의 운명이 되었다.»), 본지 2019년 12월-2020년 1월 - 연재.)는 큰 감동을 주어 심사위원들로부터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하셨다.

전채련 할머니는 이번 영주귀국 지원 대상자 중 최고령자이다. 영주귀국을 택하신 어르신은 막내딸 김금희(소냐)와 모국으로 돌아왔다. 8세 어린이로 가라후토(사할린) 타지역으로 갔다가 82년이 지나서 영주귀국을 하시게 된 어르신의 마음은 어떠실지? 상상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전채련 어르신은 한국에 입국하면서 "꿈에서도 소원하던 우리 조국에 와서 정말로 행복합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여기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라고 말씀하셨다. 이번 취재를 위해 처음 10월에 전채련 어르신의 사할린 맥 앞에서 만날 때 그는 귀국 대상으로 선정되었다며 기



(1939년, 사할린(가라후토) 오기 전에 한국에서 찍은 가족 사진. 어머니와 함께 전수문(1살), 전채련(7살). 전채련 할머니 가족사진첩에서)

쁘다고 하셨다. 그리고 영주귀국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고 하셨다.

그때 그의 딸 소냐(1954년생)가 21년 전에 이루어지지 못한 귀국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알고 본즉, 영주귀국 신청을 하신 전채련 할머니는 2000년에 안산 고향마을에 입주하실 계획이었다. 그러나 딸 소냐가 수술을 받아 돌봄이 필요했다. 딸이 일찍 남편을 저 세상으로 보냈으니 안쓰러운 딸의 건강이 걱정되어 그때 영주귀국을 포기하기로 하셨다. 사할린동포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딸과 함께 영주귀국할 수 있게 되어서 할머니는 정말 많이 기쁘다고 하셨다. 그런데 한국 집을 방문했을 때 '어떠냐'고 어쭈어보니 할머니는 "사할린에 둔 아들 가족, 손주들과 증손주들 볼까 보고싶다."고 하셨다. 한편 필자가 어르신이 거쳐하시는 집에 방문했을 때는 집에 전화기도 설치가 안되어 있었고, 휴대폰도 개통하지 못하셨고, 가구도 아직 들여놓지 못하고, 주방엔 그릇도 없고, 다만 바닥에 이불만 깔려 있었다.

'집에서 생활할 만한 잘잘한 도구도 마련되지 않고, 아직 설령해서 사할린 가족 생각이 더 많이 나게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가구와 침대도 없었지만 거실에는 아직 설치되지 않은 티비 두 대

가 보였다.

딸 김금희 씨가 지난 10월에 "우리 어머니는 한국 고전 드라마, 그리고 한국 뉴스를 보기 좋아해요. 요즘 케이블로 잠시 한국 채널이 들어오지 않아서 걱정이에요. 우리 엄마가 신경을 많이 씁니다. 한국에 가면 TV 2대를 구매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신세대 드라마를 좋아하거든요". 하는 말이 바로 생각났다.

"어머니 생신에 어머니에게 큰 걸 샀어요. 저는 작은 티비면 충분해요."라고 밝은 미소를 지으면서 딸 소냐가 말했다. "침대, 가구는 오늘 딸(김금희 씨)의 딸, 한국에서 약 20년 살고 있음)과 함께 가게 가서 구매했는데 내일 배달할 것입니다."라고 그는 계속 설명했다.

10년 전에 한국에 영주귀국한 남동생 내외가 김포에서 할머니가 입주한 날과 생신에, 이를 동안 찾아왔다는 얘기도 반가이 전했다.

전채련 할머니는 격리하는 동안 호텔에서 너무 잘 있었다는 얘기도 들려주셨고, 문재인 대통령이 영주귀국자들을 위해 보낸 식사와 환영사에 대해 아주 고마웠다고 계속 말씀하셨다. 그는 문 대통령이 보내온 "사할린동포 여러분의 귀국을 환영합니다. 긴 헤어짐과 기다림의 시절이었습니다. 가족들과 조국에서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내용

의 인사문을 잘 간직하겠다고 하셨다.

얘기를 나누는 동안 그는 여러 번 "귀가 어두워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미안합니다...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란 얘기도 하셨다. 그리고 역시 애독자인 그는 새고려신문을 안산에서 어떻게 받아볼 수 있는지 물어보기도 하셨다.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작별 인사를 하였다. 할머니의 귀국 소원이 이루어진 것은 좋으나 다른 한편으로 다시 러시아에 남은 자녀들과 이산가족이 되어서 마음이 편치 않았다.

전채련 어르신은 사할린 한인사회계에서는 <최고 할머니, 슈퍼 할머니>로 인정받고 계시다. 그는 물론 모든 1세 동포처럼 일도 많이 하셨고 고생도 많이 하셨다. 그러나 항상 긍정적이고, 움직임이 빠르고 그런 나이에 춤을 췌는이보다도 월새 없이 잘 추시고, 기억력이 좋은 분이다. 지금은 백세 시대라서 경상북도 의성군 출신인 전채련 할머니께서 한국에 계신 친우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길 기대하고 계시다. 한 분은 고향마을에 계시고 또 다른 옛 친구는 이번에 함께 영주귀국했다고 하셨다.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조국에서 남은 여생을 정말 행복하게 보내시길 기원한다.

(안산-사할린에서 배순신 기자)

이 모 저 모

여동생을 구한 사할린 학생에게 포상

오조르스크에 마을 민가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자신의 여동생(9세)을 구한 9학년 학생 아나스타시야 체르노와에게 연방의회로부터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도와 높은 인간애를 드러낸 것'에 대한 감사장과 코르사코브시의 감사장, 사할린 75주년 기념 배지를 포상으로 수여했다.

코르사코브 시장 알렉산드르 이와쇼브가 이를 치하하며 오조르스크에 마을 학교 학생에게 상을 수여했다.

아나스타시야는 선생님들과 특히 '생활 안전의 기초' 과목의 교사인 야로슬라브 프론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 과목에서 아나스타시야는 비상상황에 대처하는 지식을 배웠다.

앞서 아나스타시야 체르노와는 러시아 비상사태 대책부로부터 '우수 비상상황 대처'부문에서 훈장을 받았는데 러시아 비상사태 대책부 사할린 지부장 이고리 야무코브가 수여했다.

지난 6월 26일 오조르스크에 마을 민가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당시 집에는 아나스타시야(15세)와 여동생(9세)이 함께 있었다. 아나스타시야의 침착하고 정확한 대처 덕에 화재 진원지를 발견하고는 손에 잡히는 것을 이용해 자신과 여동생의 호흡기를 보호하도록 하고 동생과 안전한 곳으로 피

할 수 있었다. 이때도 아나스타시야는 침착함 유지하며 소방서에 전화를 걸고, 긴급 출동한 소방대원들에게 대문을 열어주며 구조대원을 맞았다고 코르사코브시 행정부가 전했다.

Сахалинскую школьницу наградили за спасение сестры при пожаре

Ученица 9 класса Анастасия Чернова, которая спасла свою младшую сестру при пожаре в частном доме, награждена благодарственным письмом Совета Федерации "За проявленные высокие человеческие качества при оказании помощи человеку, попавшего в опасную для жизни ситуацию", памятным знаком в честь 75-ле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благодарственным письмом администрации Корсаков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Заслуженные награды ученице школы села Озёрское на торжественной линейке вручил мэр Корсаков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Александр Ивашов.

Анастасия поблагодарила своих учителей и особенно педагога ОБЖ Ярослава Прыня, на уроках которого девушка научилась грамотно действовать в экстренных ситуациях.

Ранее Анастасия Чернова была награждена медалью МЧС России "За отличие в ликвидации последствий чрезвычайной ситуации", которую ей вручил начальник глав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МЧС России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горь Ямуков.

Пожар в селе Озёрское произошёл 26 июня текущего года. На момент возгорания пятнадцатилетняя Анастасия находилась в доме вместе со своей девятилетней сестрой. Благодаря чётким действиям девушке удалось

обнаружить очаг возгорания, из подручных материалов изготовить средства защиты органов дыхания для себя и сестры и вывести её на безопасное место. При этом школьница сохранила самообладание, вызвала пожарных, обеспечила беспрепятственный проезд пожарной бригады к дому, открыв ворота и встретив спасателей,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корсаковск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러시아의 비경' 경연에서 사할린의 아름다움이 9개 상 차지

'러시아의 비경' 제8회 전 러시아 여행 동영상 축제-경연 결승이 12월 7일(화) - 9일(목)까지 니즈니 노브고로드에서 열렸다. 2013년부터 국내에서 개최되고 있는 명성 높은 이 경연에서 사할린의 동영상들이 출전한 결과 금상 3개, 관객 인기상, 은상 4개, 동상 3개를 휩쓸었다. 축제 역사상 처음으로 사할린주에서 많은 작품들이 출전한 가운데 21개 작품이 결승에 올랐다.

최우수작으로 동영상 제작자인 콘스탄틴 예피모프의 '아니와 등대'와 '사할린의 역사적 유산'이 선정됐고, 예브게니 네즈제로브의 영상 '바다로 복귀'가 최우수작으로 하나 더 선정되었다. 관객 인기상으로는 '아니와 투어'여행사의 '아니와 등대의 범고래'가 차지했으며 이 동영상은 '자연 및 자연의 물체'부문에서 2위를 차지했다. '아드레날린 투어'여행사는 2개의 다큐멘터리 영상 '이투루프 - 따뜻한 품속에서'와 비디오 블로그 '어딘가 가까운 곳'으로 은상을 차지했다. (8면에 계속)

지난 12월 10일까지 사할린 동포들이 귀국하였습니다.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사할린 동포법) 시행에 따른 영주귀국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외교부의 지침으로만 진행되었던 사업이 법제정으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하지만, 영주귀국 대상이 너무 한정적이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소수만이 법의 대상이 되어 과연 사할린 동포 다수를 위한 법인가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사할린 동포사회의 오랜 염원이었던 모국으로의 귀환을 한국 사회가 품을 수 있도록 법개정과 적극적인 정책 시행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KIN(지구촌동포연대 등 연맹 단체
본사 편집부)

아래에 사할린 동포를 위한 정책시행을 촉구하는 성명서와 사할린주 한인협회의 청원문을 게재합니다.

사할린동포를 갈라놓는 사할린동포법 개정을 촉구한다!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사할린 동포법)이 올해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에 따른 영주귀국대상은 사할린동포(기존 사할린동포 1세)와 그 배우자,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로 총 4명까지 확대되었다. 올해 영주귀국 대상으로 총 337명이 선정되었고(이 중 77명은 국내체류) 260여명이 11월 27일 90여 명 입국을 시작으로 12월 10일까지 입국하였다. 이들은 자가격리기간을 거쳐 안산, 인천, 김포, 오산, 기장 등 현재 부모가 살고 있는 지역 등으로 정착할 예정이다.

사할린동포법은 대한민국에서 동포들의 귀환을 법적으로 규정한 최초의 법안으로 그 의미가 크다. 1948년 이전 수백만 명의 해외 동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이들에 대한 귀환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 냉전과 분단, 한국전쟁이라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시절도 있었지만, 냉전이 끝나면서 우리는 중국과 구소련 지역의 약 3백만 명의 동포들과 다시 만나게 되었다. 한국 정부는 이들에 대해 돌아올 권리를 지닌 동포로서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보다는 거주국과의 외교적 마찰 등을 이유로 눈치를 보았고, 국내 노동시장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이들의 자유 왕래를 제한하고 국내 체류에도 차별적인 정책을 시행했다.

사할린동포의 초기 영주귀국 업무지침에는 한국에서 신원보증을 하는 친척이 있는 고령의 독신자들만 영주귀국을 허용했다. 그러다 한일 양국의 영주귀국 시범사업으로 1945년 8월 15일 이전 사할린 거주 및 태생을 영주귀국 대상(1세로 규정)으로 하였고, 이후 2007년 1세와 그 배우자, 장애인 자녀 1명으로 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지침들은 애초부터 사할린 동포들의 희망과는 거리가 멀었다.

1994년 사할린 한인협회와 노인협회의 요구서에 따르면 1945년 말까지의 출생자들을 1세로 취급하여 보상하고, 영주귀국은 연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하며 1930년전 출생자들을 우선적으로 귀환시키되 희망가족과 동반 귀국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다. 즉 연령대에 따라 희망하는 가족과 함께 순차적인 영주귀국을 요구했지만 한일 양국의 시범사업에서 이 요구는 싹둑 잘려버렸다.

영주귀국 대상의 확대는 사할린동포들의 지속적인 요구였으며, 한국 정부는 이를 모르는 바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 시행된 사할린동포법 역시 대상을 여전히 제한하고 있다. 작년 사할린동포법 제정 이후 사할린 한인협회에서는 부모가 사망한 2세들도 영주귀국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요망서를 보낸 바 있고, 작년 11월에 열린 "바람직한 시행령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서도 이를 재차 강조하였지만 외교부는 1세가 생존한 경우만 해당되며 동반가족이라는 용어 자체

가 가족과 함께 귀국하는 사할린동포를 전제로 한 개념이어서 현재 법상으로는 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사망동포의 가족은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영주귀국이 진행되는 이 즈음, 다시 사할린동포법의 취지가 무엇인지를 근본적으로 물어야 한다. 사할린동포법이 사할린 동포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이라면 사할린 동포 다수가 그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영주귀국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다가도 1세가 사망하여 귀국이 취소되면 어떤 심정이겠는가?

1세의 배우자로 영주귀국하였다가 1세 사망 후 홀로 살고 있는 배우자들의 자녀들도 영주귀국 대상이 못 되어 그저 다른 집의 자녀들이 오는 것을 지켜봐야만 하는 심정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부모는 일찍 사망하여 영주귀국도 하지 못했는데, 그들의 자녀들은 여전히 영주귀국의 대상조차도 되지 못하는 현실은 누구에게 호소해야 하나?

비단 영주귀국 대상의 확대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현지에 정착한 동포들이 한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이 필요하다. 사할린동포의 존엄을 회복하는 것은 사할린동포 역사를 복원하는 것이며 이는 정확한 진상 규명을 바탕으로 시작되어야만 한다. 사할린동포 역사에 대한 조사, 연구 및 이를 기반으로한 역사 기념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국내 유족들의 목소리에도 귀기울여야 한다. 묘지조사를 통해 그나마 유족들이 가족을 확인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가족의 행방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 유엔이 러시아 정부에 권고도 했듯이 한국, 일본, 러시아 간의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일본은 인도적 차원에서 각종 명부들을 성실하게 공개해야 한다.

11월 23일 정부는 제 20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사할린 동포법의 시행 결과를 토대로 시행령 개정 등 입법적 보완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고 한다. 이 법으로 인하여 생긴 사할린 동포들의 응어린 마음을 풀고, 사할린 동포사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것이 너무나 늦게 법적으로 시작한 국가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길이다.

2021년 12월 14일
KIN(지구촌동포연대)/ 태평양전쟁피해자 보상추진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조선학교와함께하는사람들
몽당연필 평화디딤돌/ (사)겨레하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변론센터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청원문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유례없는 팬데믹 위기 속에 국내외 산적한 현안들에 노고가 크실 줄로 압니다. 하지만, 남북통일과 위안부 문제만큼이나 지도자의 의지와 시의성이 중요한 역사적 과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으로 끌려와 광복 후에도 귀환할 수 없었던 우리 사할린 동포들을 기억하시지요?

불행 중 다행으로 올해 우리 동포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사할린동포법)이 통과되어 곧 1차 영주귀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복 이후 지금까지 사할린에 뿌리 내린 우리 동포는 2만 6천 명에 달하는데, 법의 대상인 "사할린동포"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으로 실제 강제징용 당사자가 아닌, 어떠한 역사적 근거도 없이 편의상 낱말로 규정해놓은 대상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문제가 불거졌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율지 않은 기준은 관행이 되어 '사할린동포'가 정의되고 있습니다.

사례: 같은 강제징용 1세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출생년도의 차이로 44년생 형은 영주귀국 및 국적취득을 하였으나, 46년생인 아우는 그 어떤 혜택이나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사할린에 남은 경우는 모든 가정마다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올해 영주귀국 대상이 된 "동반가족"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로서 기영주귀국 후 현재 생존해 있는 법적 "사할린 동포"의 보호자 개념으로 국한되어, 기존 수혜자에게는 중복 혜택을, 비수혜자에게는 중복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사례: 위 사례의 44년생 형은 본인도 영주귀국을 했고 이제 자녀1명과 배우자도 부를 수 있지만, 46년생 아우는 본인은 물론, 자녀도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한편, 실제 징용대상이었던 1세는 1900~1930년대생(징용당시 15~45세 추정)으로 최초 영주귀국 당시인 1990년대에도 생존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그들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1945.8.15라는 의미없는 기준과 '동반'가족이라는 제약으로 두 차례, 세차례 상처받고 있습니다.

사례: 대통령님께서 2017년 블라디보스톡 동포 오찬에서 만나셨던 1923년생 김윤덕 어르신은 1990년 최초 영주귀국 당시, 부부만 대상이 되어 아이들과 이산가족이 될 수 없어 오랫동안 꿈에 그린 영주귀국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 1명이나마 데려갈 수 있는 사할린동포법이 제정되었지만, 어르신은 이미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결국 이산가족을 원치 않았던 어르신과 그의 자녀에게는 고향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고, 이는 1990년 이전에 사망한 모든 1세와 그들의 자녀에게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올해 영주귀국 대상자는 337명입니다. 부부동반임을 가정하면, 200가구도 되지 않습니다. 국내 기영주귀국자 기준으로 1936년생의 자녀까지만 해당이 되는 숫자입니다. 태어나는 것은 차례가 있지만, 죽는 것은 차례가 없습니다. 몇 해 후면 '동반'할수 있는 1세도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칙없는 기준과 시행으로 사할린 동포를 여러번 울리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할린 동포는 사할린동포법 제2조 제1항 '사할린 동포'의 정의에서 '1945.8.15.'의 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 또는 제1조 및 제2조 제2항의 '동반가족'이 '직계비속'으로 개정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영주귀국을 택하지 않고 사할린에 남은 동포들에게 전후 주어지지 않았던 **국적 선택권을 소급 적용**하여, 현지에서도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제징용 1세는 징용으로 부모와 이별했고, 영주귀국 때문에 자식과도 이별해야 했습니다. 눈에 밝히던 그 자식들을 이제 생의 끝에서 한 놈이라도 데리고 갈 수 있어졌지만, 그 자식은 또 그의 자식과 이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끝없는 이산가족의 역사, 이제는 끝내 주십시오.

2021년 11월 15일
사할린 한인협회장 박 순 욱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2810750340100530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한국에서는: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190-01-021311 예금주 BYA VIKTORIYA.
본사 편집부

광고-광고

새고려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신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едлагает печатные площад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рекламы, объявлений и поздравлений.

Конт. телефон 43-59-80, 43-72-94. Адрес эл.почты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Большинство южнокорейцев не имеют информации о родственниках на Севере

Подавляющее большинство южнокорейцев не обладают информацией о судьбе их родителей, братьев и сестёр, оставшихся на Севере в результате разделения страны после Корейской войны 1950-53 годов. По данным опроса, проведён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ом по делам воссоединения РК среди 5.354 членов разделённых семей, проживающих в РК и за рубежом, 82% респондентов заявили, что не знают, живы ли их родственники. Среди тех, кто осведомлён о судьбе и местонахождении родственников на Севере, половина получили информацию от организаторов частных программ обмена. 65,8% участников опроса считают необходимым организовать обмен информацией о судьбе родственников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и получение уведомлений по специальному каналу в случае их смерти. Более 20% респондентов считают необходимыми регулярные встречи разделённых семей и налаживание стабильного обмена письмами. Респонденты были определены путём случайной выборки из 47 тыс. человек, которые официально обратились к правительству с просьбой разыскать их родственников на Севере.

Эксперты призывают подростков вакцинироваться от COVID-19

В РК наблюдается значительный рост числа инфицированных COVID-19 среди подростков в возрасте до 18 лет: в среднем 15 положительных результатов ПЦР-тестов на 100 тыс. человек, что в 1,5 раза больше, чем неделю назад. В этой связи органы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призывают подростков вакцинироваться как можно быстрее, подчёркивая, что побочные реакции от вакцин в подавляющем большинстве случаев легко переносятся молодым организмом. При этом вакцинированные как правило легко переносят болезнь даже в случае заражения. Положительный эффект от прививки перевешивает риск, связанный с коронавирусом. В частности, риск миокардита у подростков выше при заражении, чем после прививки. Результаты исследования, проведённого среди подростков в возрасте от 12 до 17 лет, свидетельствуют о том, что лишь 6,9% из них собираются вакцинироваться. Против вакцинации выступают не только подростки, но и их родители. Эксперты подчёркивают, что нынешняя ситуация не позволяет сомневаться в пользе вакцинации. Они приводят в качестве примера США, где уровень госпитализации среди невакцинированных подростков в возрасте от 10 до 17 лет в десять раз выше, чем среди вакцинированных. Вакцинация гарантирует безопасную образовательную среду для школьников и студентов, пока продолжается пандемия коронавируса. Врачи также единодушны в том, что подростки должны иметь «вакцинные пропуска». Это поможет быстрее выявлять контакты заражённых и бороться с инфекцией, вовсе не являясь замаскированным способом заставить подростков прививаться.

В 2025 году в Сеуле появятся «воздушные такси»

В 2025 году в Сеуле появятся «воздушные такси». Коммерциализация городского воздуш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предусмотрена «Концепцией 1.0 городской воздушной мобильности в корейском стиле», опубликованной 27 сентября министерством сухопутных территорий и транспорта.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ланом, начальная фаза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воздушных такси» будет реализована в период с 2025 по 2029 год, фаза развития - с 2030 по 2034 год и фаза зрелости - с 2035 года. На начальном этапе потребуются присутствие пилота, в то время как на этапе развития пилот сможет работать удалённо, а на этапе зрелости транспорт станет автономным. В качестве остановок и пересадочных центров, будут использоваться пункты вертикальной посадки. «Воздушные такси» будут летать по специально выделенным коридорам.

KBS World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6-й Региональный форум FLC RE-Union, Россия и СНГ

Дорогие друзья!

Приглашаем Вас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6-м Региональном форуме FLC Re-Union, Россия и СНГ!

В январе 2016 года в Москве состоялся 1-й Форум FLC Re-Union, прошедший как региональная встреча корейской молодежи из России и СНГ, участников глобаль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 Future Leaders Conference (FLC), которая ежегодно проводится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Фондом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OKF, Overseas Korean Foundation).

За прошедшие 5 лет существования Форум FLC Re-Union зарекомендовал себя в качестве дискуссионной площадки, где мы стремимся к тому, чтобы:

- содействовать укреплению дружеских связей, общению и взаимному обмену знаниями, опытом между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активной корейской молодежи в России и СНГ;
- выявлять талантливых молодых лидеров, чья деятельность поможет укреплению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 стимулировать интерес корейской молодежи к сохранению историко-культурной идентичности русскоговорящих корейцев, проживающих в России и СНГ.

Если Вы сами или известные Вам люди разделяют наши интересы, то мы с радостью приглашаем Вас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6-м Региональном форуме FLC Re-Union, Россия и страны СНГ, который пройдет в Москве с 21 января 2022г. по 23 января 2022г.!

Форум поддерживается руководством ОКФ и входит в программу региональ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Фонда. Во время Форума планируется проведение дискуссий, лекций видных деятелей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в СНГ, а также много-много общения.

Условия участия:

- Для регистрации на форум FLC Re-Union необходимо заполнить анкету участника и направить ее электронным письмом по адресу flc.cis.reunion@mail.ru.
- Вы получите ответное письмо с подтверждением регистрации.
- Расходы по участию в форуме:

Регистрационный взнос	Нет
Транспортные расходы до Москвы и обратно	Оплачиваются участниками форума
Проживание и питание в Москве (3 дня, 2 ночи)	Оплачивается оргкомитетом

- Заполненную анкету участника необходимо будет прислать на адрес flc.cis.reunion@mail.ru, указав в теме письма «Анкета_ФИО_Город».

По всем интересующим вопросам обращайтесь по адресу flc.cis.reunion@mail.ru или по телефону (а также Viber, WhatsApp, Telegram) +7(915)055-5436 (Василий Кан), +7(903) 625-5118 (Александр Пак).

С уважением, Оргкомитет

Систему пропусков о вакцинации недовольные приравняли к нарушению прав человека

Сеул, 14 декабря – ИА РУСКОР

Владельцы кафе и ресторанов, а также клиенты высказали жалобы, когд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Южной Кореи всерьез начало применять систему пропусков вакцинации в попытке обуздать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коронавируса.

После недельного пробного срока 13 декабря в стране официально начала действовать система пропусков о вакцинации, требующая, чтобы все посетители кафе и ресторанов предъявляли сертификат, подтверждающий, что они прошли вакцинацию против COVID-19 или показали отрицательный результат теста.

Предприятия общественного питания могут быть оштрафованы на 1,5 миллиона вон (\$1 270) или отстранены от работы на 10 дней, если они не соблюдают систему. Отдельным нарушителям может грозить штраф в размере 100 000 вон каждый раз, когда они нарушают систему.

Однако система не была успешно реализована в первый же день.

Многие люди испытывали трудности с доступом либо к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истеме цифровой аутентификации вакцинации, либо к аутентификации QR-кодов с помощью других популярных сервисов, таких как Naver, Kakao Talk и Toss Bank, примерно в обеденное время.

В некоторых кафе и ресторанах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дня сотрудники просили клиентов регистрировать свои данные только с помощью телефонных звонков или книг посетителей, не проверяя их статус вакцинации из-за большой нагрузки в обеденное время.

«Большинство клиентов добровольно показывают свой пропуск о вакцинации перед входом, но для того, чтобы тщательно

выполнить работу, мне нужно нанять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сотрудника на неполный рабочий день, зарплата которого не выплачивается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 сказал владелец ресторана барбекю на юге Сеула по фамилии Мин.

В популярном онлайн-сообществе владельцев малого бизнеса некоторые жаловались на финансовое бремя, связанное с расходами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оборудования, необходимого для системы, такого как мобильные телефоны и планшетные ПК, и возможные штрафы, которые им придется заплатить.

Некоторые, особенно пожилые люди, не смогли даже пообедать, так как у них не было пропуска о вакцинации.

Около 11:30 утра два пожилых человека посетили ресторан рисового супа в западной части Сеула, но не смогли войти в заведение, так как у них не было сертификата о вакцинации. У одного из них был только мобильный телефон старого поколения, в котором нет онлайн-системы сертификации вакцинации, а другой оставил свой телефон дома.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редлагает QR-сертификат о вакцинации в своем приложении для смартфонов COOV, который может быть связан с другими популярными сервисами, такими как Naver и Kakao Talk, которые недоступны на старых мобильных телефонах. Те, кто не может пользоваться COOV, должны иметь при себе бумажные сертификаты о вакцинации для входа в кафе и рестораны.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полдень понедельника более 356 000 человек подписали петицию с требованием отменить систему пропусков о вакцинации, назвав эту политику «нарушением основных прав человека».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Лидер КНДР подтвердил намерение продолжать политику «опоры на собственные силы»

14 декабря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СМ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ообщили о том, что лидер страны Ким Чен Ын подтвердил намерение продолжать политику «опоры на собственные силы», которую он унаследовал от своего деда, основателя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Ким Ир Сена, и его последователя Ким Чен Ира, отца нынешнего лидера. Как сообщила газета «Нодон синмун», главный печатный орган Трудовой партии Кореи, Ким Чен Ын сделал данное заявление в преддверии десятилетней годовщины прихода к власти. Он сказал, что его главное желание - «вечно идти одним и тем же путём». Когда и где было сделано данное заявление, не уточняется. Революция будет продолжаться, если лидер страны будет жить вечно, но если жизнь лидера не будет защищена, революция погибнет, - пишет «Нодон синмун».

17 декабря в Сеуле состоится южнокорейско-узбекистанский саммит

С 16 по 18 декабря президент Узбекистана Шавкат Мирзиёев совершит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визит в Сеул по приглашению президента РК Мун Чжэ Ина. Как сообщила представитель администрации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президента Пак Кён Ми, лидеры двух стран проведут переговоры 17 декабря, в ходе которых обсудят меры по углублению взаимовыгод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устремлённого в будущее. Предыдущий визит президента Узбекистана в РК состоялся в 2017 году. Тогда Шавкат Мирзиёев выступил с речью в Национальном собрании. В 2022 году две страны отметят 30-летие установлени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В 2022 году РК пожертвует в чрезвычайный фонд ООН 6 млн долларов

РК обязалась пожертвовать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в Центральный фонд реагирования на чрезвычайные ситуации ООН 6 млн долларов. Как сообщили 9 декабря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К, об этом сообщал на заседании высокого уровня, состоявшемся в формате видеоконференции,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по многосторонним и глобальным вопросам Хам Сан Ук. 39 стран, включая РК, обязались пожертвовать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467 млн долларов. Участники заседания согласились с необходимостью увеличить вклады в фонд в связи с растущей потребностью в гуманитарной помощи из-за пандемии COVID-19. Центральный фонд реагирования на чрезвычайные ситуации был основан в 2006 году для оказания оперативной помощи во время непредвиденных гуманитарных кризисов, таких как стихийные бедствия.

Южнокорейский контент отмечен премией People's Choice 2021

Южнокорейская поп-группа BTS и сериал «Игра в кальмара» были удостоены американской премии People's Choice 2021. Церемония вручения наград состоялась 7 декабря в Калифорнии. BTS стали победителями в трёх категориях: «Музыкальный коллектив года», «Песня года» и «Музыкальный клип года». Сериал «Игра в кальмара», вышедший на платформе Netflix, был назван лучшим в номинации «Увлекательный сериал 2021 года». Таким образом, к успехам исполнителей музыки k-pop теперь добавилось мировое признание южнокорейских сериалов. People's Choice — это американская премия в области популярной культуры, которая вручается с 1975 года. Победители определяются голосами зрителей и фанатов.

Сериал «Игра в кальмара» номинирован на «Золотой глобус» в трёх категориях

Знаменитый южнокорейский сериал «Игра в кальмары» номинирован на ежегодную премию «Золотой глобус» в трёх категориях: «Лучший фильм - сериал», «Лучший актёр в драматическом сериале» и «Лучший актёр второго плана в телесериале». «Игра в кальмара» поборется за главную премию «Лучший фильм - сериал» с такими известными работами зарубежных режиссёров как «Наследники», «Утреннее шоу», «Люпен» и «Поза». Исполнитель главной роли в «Игре в кальмара» Ли Чжон Чжэ конкурирует в борьбе за награду с Брайаном Коксом и Джереми Стронгом из «Наследия», Вилли Портером из «Позы» и Омаром Си из «Люпина». Вместе с О Ён Су на премию «Лучший актёр второго плана в телесериале» претендуют Билли Крудап и Марк Дюпласс из «Утреннего шоу», Киран Калкин из «Наследия» и Бретт Гольдштейн из «Теда Лассо». Лауреаты «Золотого глобуса» 2022 года будут объявлены 9 января. В 2021 году лауреатом премии «Золотой глобус» в категории «Лучший фильм на иностранном языке» стал фильм «Минари» американского режиссёра корейского происхождения Ли Исаака Чона. В 2020 году «Золотой глобус» в категории «Лучший фильм на иностранном языке» получила картина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режиссёра Пон Чжун Хо «Паразиты». Премия «Золотой глобус» была учреждена в октябре 1943 года, а первая церемония награждения состоялась в январе 1944 года. Лауреатов премии определяют 93 члена Ассоциации иностранных журналистов, аккредитованных при Голливуде. (RKI)

В южнокорейском Пусане обсудили проблемы Арктики

6 декабря в южнокорейском Пусане начала работу международ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Неделя арктического партнерства 2021", в ходе которой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тран, заинтересованных в изучении и развитии региона Северного полюса, обсудили проблемы этой части нашей планеты.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РК)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не имеет прямого выхода к Арктике, но на правах страны-наблюдателя Арктического совета принимает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в деятельности по исследованию Северного полюса и прилегающих регионов. "Мы надеемся, что дан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представит собой платформу для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как арктических, так и неарктических стран мира", - заявил министр морских дел и рыболовства РК Мун Сон Хёк. Глава ведомства отметил, что нынешний год стал особенным в плане активизации усилий Кореи по изучению полярных регионов. "Сделаны сразу три важных шага в этом направлении: во-первых, принят и с октября вступил в силу "Закон о развитии деятельности в полярных регионах", который создал правовую базу для полноценной работы, во-вторых, парламентом утвержден план строительства второго ледокола, который позволит существенно увеличить наши возможности в районе Северного полюса, в-третьих, буквально на днях принята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Стратегия деятельности РК на Северном полюсе 2050", создающая основу для долгосрочной работы.

Программа "Недели арктического партнерства 2021" была разделена на 13 тематических семинаров и конференций, в ходе которых были обсуждены наиболее актуальные проблемы Северного полюса, включая изменение климата, флоры и фауны, микроорганизмов, использование новых технологий, вопросы логистики, эффективного и экологически обоснован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освоения, прав коренных народов региона и др.

Участники мероприятия, среди которых более сотни политиков, ученых, экспертов в сфере логистики, судостроения, антропологии и других направлений из Кореи, России, Норвегии, Канады, Японии, Китая и других государств, неоднократно указывали на необходимость развити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Россией. "Огромная территория России выходит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к

региону Северного полюса, а потому невозможно игнорировать вашу страну. Безусловно, Южная Корея крайне заинтересована в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с вашей страной по части изучения и использования районов Северного полюса. Хотя Корея не имеет прямого выхода к Северному полюсу, но мы могли бы предложить россиянам нашу помощь по части активизации использования Северного морского пути, развития логистической и портов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судостроения, а также в сфере проведения разнообразных науч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в микробиологии, изучении климата, проблем Мирового океана и других", - пояснил "Российской газете" Генеральный секретарь Консорциума науч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Северного полюса и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Института поляр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РК Сон Хён Гё. Он добавил, что министерство морских дел и рыболовства РК, как ведущая структура этой сферы, и Институт поляр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РК намерены прикладывать максимум усилий для развития партнерских отношений с российскими коллегами. "У нас уже действует значительное количество програм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РФ, реализуемых в том числе на бюджет как ведомства, так и института. Надеемся, что это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станет более масштабным и активным", - подчеркнул он, сказав, что лично также принимал участие в совместной с россиянами деятельности и посещал регионы Крайнего Севера РФ.

"Неделя арктического партнерства 2021" в Пусане продлилась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пять дней и завершила свою работу 10 декабря.

Олег Кирьянов (Пусан, РК)



Фото: Олег Кирьянов / РК

Воспитанников детских садов обеспечат бесплатным питанием вплоть до поступления в школу

Сеул, 13 декабря – ИА РУСКОР

Бесплатные обеды будут подаваться всем воспитанникам детских садов в Сеуле с марта будущего года, завершая городскую программу всеобщего бесплатного питания вплоть до средней школы.

Управление образования Сеула, город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и совет отделений прихода подписали соглашение о выделении средств на программу всем 790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и частным детским садам.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этот год, в Сеуле насчитывается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71 876 детских садов.

Для программы бесплатного питания в детских садах потребуется около 69,9 миллиарда вон (\$59,4 миллиарда) в год. Из общей суммы 50 процентов придется

на городское управление образования, 30 процентов – на город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а 20 процентов — на приходские отделения.

С 2011 года Сеул расширил программу бесплатных обедов для всех учащихся начальной, средней и выпускной школ до этого года. В этом году 727,1 миллиарда вон было выделено на бесплатное питание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около 835 000 учащихся.

«Благодаря политике, распространенной на детские сады, все дети теперь будут получать сбалансированное питание без какой-либо дискриминации», — сказал Чо Хи Ён, глава управления образования Сеула, добавив, что программа также поможет облегчить финансовое бремя родителей.

"Полигранд"

Партнер,
созданный для Вас!

Тел.: 42-49-54, 42-49-89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Заканчив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е полугодие 2022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е полугодие — 557 руб. 04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ервой в России утвердила климатическую программу до конца 2025 года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выбран в качестве пилотного, где будет достигнут баланс между выбросами и поглощениями парниковых газов. На совместной презентаци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Центра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разработок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тметил, что закон о климатическом эксперименте планируется рассмотреть в Госдуме РФ до конца этого года.

– Климатический эксперимент – это, во-первых, во-прос комфорта жизни на островах. Это чистый воздух, убраный мусор, экологичные производства и транспорт. Во-вторых, климатическая повестка определяет конкурентоспособность сахалинского бизнеса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м рынке. Происходящие в мире глобальные перемены заставляют думать не только об извлечении прибыли, но и о сохранении природы,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В этих новых условиях мы сделали решительный шаг в направлении декарбонизации экономики, чтобы открыть новое будущее, чтобы обеспечить дальнейшее развитие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Наша стратегия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достижение островным регионом углеродной нейтральности в 2025 году.

Снизить вредные выбросы в атмосферу позволит 100-процентная газификация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 за счет трубного газа и СПГ. До конца 2025 года 135 котельных должны перевести с угля и мазута на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ое топливо и подключить к газу частный сектор. Активная работа в этом направлении уже ведется. Несколько лет назад уровень газификации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составлял всего 14 процентов, сегодня – более 50 процентов.

Также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действует широкий спектр мер поддержки для автовладельцев, которые переводят свой транспорт на метан. Создается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для электрокаров.

Еще один источник выбросов углекислого газа – свалки. На островах развернули масштабную работу по ликвидации залежей мусора. В прошлом году убрали 2500 тысячи незаконных свалок, в этом – более 650. Во всех районах внедряется система раздельного сбора отходов во всех районах. Помимо этого, больш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яется развитию альтернативной энергетики и энергобережению. Ежегодно восстанавливают 3 тысячи га леса – главного поглотителя вредных выбросов.

Напомним, в этом году был принят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ограничении выбросов парниковых газов», устанавливающий рамки углеродной отчетности для круп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Этот документ определяет правовую основу реализации климатических проектов в России.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ервой разработала программу по достижению углеродной нейтральности и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й проект закона.

– Россия стремится к построению сбалансированной системы климатического регулирования на региональном, отраслевом и национальном уровнях. Российские регионы имеют значительные различия как в плане позиций по выбросам и поглощению парниковых газов, так и в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м плане.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стала первым субъектом России, объявившим о стремлении к углеродной нейтральности и о реализации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го эксперимента. Он позволит показать эффективность мер региональной климатической политики, пути координации с национальной политикой, перспективы признания российских климатических проектов зарубежными торговыми партнерами, – отметил президент Центра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разработок Владислав Онищенко.

В ходе презентации также был подписан ряд соглашений.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Центр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разработок намерены сотрудничать с целью создания условий для сокращения выбросов парниковых газов на островах. Соглашение с «Дюраселл Раша» направлено на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е практики утилизации батареек и других отработанных химических источников ток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дписали трехстороннее соглашение о минимальной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е на 2022 год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едседатель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союза организаций профсоюзов Александр Кознов и глава регионального Союза промышленников и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Константин Сухоробрик заключили Соглашение о минимальной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е на 2022 год.

– Наша основная задача – это повышение качества жизни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Мы действуем в партнерстве с профсоюзами и работодателями области, решаем эту задачу совместно. Подписанное соглашение позволит почувствовать нашим жителям социальную защищенность. Установлены минимальные гарантии по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е, которые работодатели области обязаны обеспечивать – подчеркну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С 1 января 2022 года минимальная заработная плат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величится на 8,6% и составит от 29 411 до 39 214 рублей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района проживания:

– 29 411 рублей – для работающих в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ом, Анивском, Долинском, Корсаковском, Макаровском, Невельском, Поронайском, Смир-

ныховском, Томаринском, Тымовском, Углегорском, Холмском районах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 36 413 рублей – для работающих в Ногликском и Охинском районах;

– 39 214 рублей – для работающих в Курильском, Северо-Курильском и Южно-Курильском районах.

Напомним,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 единственный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регион, который соглашением повышает минимальные гарантии по оплате труда своих работников, установленные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рактику подписания подобных документов на островах возобновили с прошлого года по инициативе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Сахалинцев наградили памятными знаками в честь Дня героев Отечества

Торжествен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состоялось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наро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Глава регион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ручил памятные знаки «В честь 75-ле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10 сахалинцам.

– Даже человек, который никогда не совершал ничего героического, попав в определенные обстоятельства ведет себя, как герой. Сотни тысяч, миллионы россиян стали героями, когда Отечество призвало их. Так происходило на протяжении всей истории нашей страны. Отечественная война 1812 года, Первая мировая и Вторая мировая войны, все события в горячих точках – вызов для героев. И сегодня в пандемию люди в белых халатах сражаются за людей, ежедневно рискуя жизнью. И среди молодежи есть будущие герои, которые будут отважно себя вести в океане во время шторма, которые наденут форму и будут защищать Отечество. Скоро мы отметим 75-лети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в честь юбилея награждаем сахалинцев, в жизни которых есть место повседневному подвигу,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За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памятными знаками губернатора наградили председателя Совета ветеранов войны, труда,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и правоохранительных органов Корсаковского района Юрия Яницкого, члена общественного совета пр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Холмского района Татьяну Летуновскую, заведующую отделением роддом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Тамару Бродскую, заведующую акушерским отделением Долинской ЦРБ Галину Дмитриенко, заведующего хирургическим отделением Корсаковской ЦРБ Александра Ри. Наград также удостоились преподаватель корсаковской школы искусств Мария Головченко, почетный гражданин Невельского района Владимир Пак, педагог допобразования школы №4 Корсакова Николай Кудым, президент группы компаний «Горняк» Ацамаз Тадтаев и начальник отдела корсаковской спортивной школы Владимир Ли.

В зале собрались ветераны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участники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почетные граждан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районов. Губернатор отметил, что высокие звания – это дань уважения к заслугам островитян. В День героев Отечеств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благодарил сахалинцев за то, что они жертвуют силами и временем ради общественного блага, проявляют инициативу и помогают тем, кому это необходимо.

К участникам торжества обратился Владимир Цветков – ветеран Афганской войны, почетный гражданин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гражденны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и, ведомственными и другими значимыми наградами. Владимир Константинович – ровесник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н родился в день образования региона – 2 января 1947 года.

– Этот праздник очень значим. Его вновь стали отмечать в нашей стране с 2007 года. На долю России всегда выпадали непростые испытания. Но я уверен, что со всем мы сможем справиться, если объединим усилия, – сказал Владимир Цветков.

На празднике чествовали также ветерана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Декабрину Пушкареву. На днях ей исполнилось 97 лет.

После официальной части торжествен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должил праздничный концерт.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дал старт «Ёлке желаний»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ая акция помогает исполнять мечты ребят из детских домов, многодетных и малоимущих семей, детей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и тяжелыми заболеваниями.

Перед началом заседания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едложил руководителям органов власти присоединиться к «Ёлке желаний».

– Приближается, пожалуй, самый любимый праздник детей и взрослых. Новый год – это время чудес и добрых дел. На нашей ёлке собраны заветные мечты юных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Предлагаю нам с вами выступить в качестве Дедов Морозов и исполнить их,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этом году более 2500 сахалинских ребят написали Деду Морозу о том, что бы они больше всего хотели получить на Новый год. Некоторые из этих писем стали шарами на Ёлке желаний.

Даша Полковниченко мечтает о ноутбуке, чтобы смотреть развивающие программы для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зрения. Никита Савельев – особенный мальчик, он не может ходить в школу и хочет компьютер для онлайн-занятий. Елизавета Комрадова из Стародубского часто ездит с

родителями в больницу. И чтобы дорога проходила веселее, девочке нужен планшет с мультиками. Мечты детей исполняет председатель и зампреды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Губернатор снял с ёлки шар с желанием Артура Федотова из Охи. Мальчик мечтает увидеть Москву, погулять по Красной площади и побывать в детских развлекательных центрах.

На Ёлке желаний в областн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е – 33 шарик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дчеркнул: каждое желание обретет доброго волшебника, который воплотит детские мечты в жизнь.

Отметим, что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ая акция проходит четвертый год. Благодаря этому исполнились тысячи желаний детей по всей России.

На Сахалине запустили газопровод, питающий южную часть островной столицы

В запуске крупного объекта энергетик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Александр Новак, губернатор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ления ПАО «Газпром» Виталий Маркелов, член правления ПАО «Газпром» Владимир Марков и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АО «Газпром газораспределение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Георгий Шперлинг.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состоялась торжественная церемония пуска голубого топлива на газораспределительный пункт – межсистемную переемычку от ГРС «Южная» к газопроводу «Восточный».

Строительство трубопровода длиной более 18 километров проходило в несколько этапов. В прошлом году нить проложили через объекты спортивно-туристического комплекса «Горный воздух» до «Ботанического сада». В этом году её продлили, соединив с идущим от ГРС «Дальнее» действующим газопроводом.

– Завершена серьезная работа – «Газпром» закольцевал газопровод вокру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что позволит дополнительно подключить к газоснабжению почти 5 тысяч домов. Уверен, работа будет выполнена до конца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богата ресурсами, поэтому будет справедливо, если жители региона получат доступ к газу. Это создаст условия для ввода новых рабочих мест, развития производств. Мы видим, что здесь выполняется программа газификации, реализуется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е поруч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 подчеркнул Александр Новак.

– Хочется поблагодарить компанию «Газпром». У нас до 2025 года разработана совместная программа газификации. Её масштаб – около 30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Фактически, мы на 100 процентов обеспечим Сахалин и Курилы газоснабжением. Отдаленные населенные пункты – за счет сжиженного природного газа. Для этого будет построен завод по производству малотоннажного СПГ, уже разработана технология поставки топлива, – рассказа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Сегодня газ начал поступать на коммунальные объекты жилищного комплекса «Роза Таун», дома Сахалинского ипотечного агентства и объекты частных компаний.

Напомним, несколько лет назад уровень газификации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составлял 14 процентов. Сейчас – более 50 процентов.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рамках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отремонтируют 60 дворов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выбрали придомовые территории, которые будут отремонтированы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1000 дворов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Из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на реализацию программы в федеральном округе выделено 7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При этом 418 миллионов направят островному региону на ремонт не менее 60 дворовых площадок.

– В этом году мы проделали большую работу по текущему ремонту дворов – привели в порядок около 700 придомовых территорий. Нам помогли волонтеры и неравнодушные жители области, которые присоединились к поиску дефектов. Считаю необходимым продолжить эту работу и в будущем. Кроме того, нужно ежегодно капитально ремонтировать не менее 120 дворов. Участие в федеральных проектах открывает большие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решения этой задачи,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было организовано голосование – жители области выбирали дворы, нуждающиеся в ремонте. В опрос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1167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Самыми активными были южносахалинцы. Свои голоса отдали 458 жителей островной столицы.

В перечень дворов, подлежащих благоустройству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вошли придомовые территории, жители которых принимали участие в голосовании и готовы взять на себя работы по содержанию.

Сейчас проводится проверка дворовых территорий, вошедших в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й перечень на следующий год. Необходимо исключить те адреса, которые уже вошли в список дворов, где ремонт будет проводиться в рамках реализации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Формирование комфортной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или запланирован капремонт инженерных сетей.

Проекты и сметы должны быть сформированы до 1 марта 2022 года. К работам подряд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смогут приступить весной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2021 재외동포 언론인 초청연수 수료식 개최

2021.12.1.(수)-9(목)<8박 9일>, 중국 및 러시아CIS지역 동포 언론인 대상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곤)은 12.9(월), 코리아나호텔에서 "2021 재외동포 언론인 초청연수"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중국과 러시아-CIS지역의 고려신문, 새고려신문, 길림신문사, 해란강닷컴 등 민족 언론사 출신을 비롯한 재외동포 언론인이 참여, 12월 1일(수)부터 9일(목)까지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디지털 저널리즘, SNS 활용법, 영상편집법 등 미디어 관련 교육 수강, ▲국내 언론사(YTN, 연합뉴스) 견학, ▲광주 고려인마을 탐방 및 김장나눔 활동, ▲전세계 재외동포 언론인과의 온오프라인 간담회, ▲모국역사문화 체험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사할린 새고려신문사의 배순신 대표는 "연수를 통해서 다양한 국가의 재외동포 언론인과 교류하며, 재외동포 언론사 미래에 대해 토론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배움과 나눔이 있는 연수였기에 뜻 깊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김성곤 이사장은 "한민족의 얼을 지키는 언론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재외동포 언론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며 "한민족 정체성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흥이 인간 정신에 따라, 각 거주국의 풍습과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며, 내가 속한 공동체뿐 아니라 전 인류와 '하나되기' 운동을 위한 캠페인을 적극 실천해 달라"고 말했다.

리시아 고려신문 이철수 편집장은 "동사업에 차세대 재외동포 언론인의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연수로 발전시켜야 하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존폐의 위기에 놓여있는 중국 및 러시아CIS지역의 재외동포 언론사에 관심과 배려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곤 이사장은 "한민족의 얼을 지키는 언론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재외동포 언론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며 "한민족 정체성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흥이 인간 정신에 따라, 각 거주국의 풍습과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며, 내가 속한 공동체뿐 아니라 전 인류와 '하나되기' 운동을 위한 캠페인을 적극 실천해 달라"고 말했다.

[우리말로 깨달다]

산으로 가다

우리는 이야기를 하다가 주제에서 벗어난 말을 하거나 방향에 맞지 않는 말을 할 때 이야기가 산으로 갔다는 표현을 합니다. 정답과는 상관없는 방향을 향하는 것이기에 길을 잃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길로 가지 않고 산으로 가면 엉뚱하고 틀린 게 됩니다. 회의가 산으로 가면 답은커녕 회의 자체가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속담에 있듯이 사공이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간 것입니다. 이렇듯 산으로 간다는 말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느낌을 줍니다. 일을 자의든 타의든 그만둔 사람도 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원을 떠돌기도 하지만 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년을 하면 본격적으로 산으로 갑니다. 산에 가면 뭐가 있냐고 하지만 아무튼 산으로 갑니다. 산은 내가 갖고 있던 것이 사라졌음을 알게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향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 산으로 간 사람이 많았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른 곳에 비해 산은 좋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건강한 곳이 산입니다.



▲ 조현용 (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우리는 산에 길을 잃어서도 가고 길을 찾으려고도 갑니다. 종교에서는 깨달음을 얻거나 신의 계시를 받기 위해서도 산으로 갑니다. 산에 가서 하늘의 계시를 받는 장면은 익숙한 모습입니다. 험하고 깊은 산에 가면 얻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다시 태어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으로 간다는 것이 수행을 의미하기도 하고 신을 만나는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신라의 화랑이 산천을 다니며 깨달음을 얻었던 것은 그런 이유일 겁니다. 바람 따라 흘러 다녔기에 풍류(風流)라고도 했습니다. 단순히 노는 것이 풍류가 아닙니다. 산을 다니는 겁니다. 산을 오르고 자연을 느끼는 것이 풍류이고도 있습니다.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이기에 도라고 했을 겁니다. 화랑을 다른 말로는 국선(國仙)이라고 했습니다. 선(仙)은 산을 다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산을 오래 다니면 신선이 됩니다.

종교의 많은 수행처가 산속에 있습니다. 여러 사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산속에 자리하기도 했으나 기독교의 수도원도 그렇고 불교의 많은 절도 깊은 산속에 있습니다. 저는 종종 기도를 드리러 산에 오른 사람들은 산에 오르면서 이미 기도가 이루어졌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산에 오르면서 간절한 마음이 깊어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약초를 캐는 사람이 약초를 먹는 사람보다 건강한 건 뜻밖의 진리입니다. 병에 걸린 사람에게 제일 좋은 처방은 약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약초 캐는 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약초와 독초를 구별하며 새로운 지식을 얻고, 약초를 캐기 위해 산을 오르고 땀을 흘립니다. 어느새 머릿도 새로워지고, 몸도 새로워지고, 마음도 새로워집니다. 무엇보다도 집착이 떨어지고 자연과 하나가 됩니다. 더 이상 아픈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혼자 산에 오르는 이도 많습니다. 부부나 친구가 함께 산에 오르기도 합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더 열심히 산에 오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산에 오르는 것은 참 다행한 일입니다. 살면서 길을 잃어 산에 갔는데 산은 또 다른 길이 되었습니다. 산에서 살아갈 힘을 얻고 길을 찾습니다. 산에서 만난 하나하나가 깨달음이 됩니다. 다음 산이 기다려지고, 다음 계절이 기대됩니다. 건강은 텀으로 주어진 행복입니다.

길을 잃고 세상이 싫어서 산을 올랐는데 오히려 사람을 사랑하고 위로하게 됩니다. 산에 오를수록 사람이 그림습니다. 산에서 만난 사람에게 기쁜 인사와 걱정의 안부를 나눕니다. 앞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앞을 향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나와 함께 지나간 것이 과거(過去)이고, 아직 내 앞에 오고 있는 것이 미래(未來)입니다. 지금 내가 모습을 내보이며 살고 있는 것이 현재(現在)입니다. 저는 산을 걸으며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현재를 느낍니다. 산을 또 걷습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ручил увеличить число телемедицинских консультаций в Томаринском районе

На встрече с губернатором 10 декабря жители подняли вопрос доступности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узких специалистов. По решению главы региона будут шире использоваться выездные форматы работы и телемедицина.

Многолетняя мама Любовь Николина рассказала, что к детскому неврологу приходится ездить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 В Томаринском районе проживает около 8 тысяч человек, и по нормативам не все узкие специалисты предусматриваются в штатном расписании центральной районной больницы. Многие врачи по совместительству оказывают помощь как взрослым, так и маленьким пациентам.

– Люди от этого страдать не должны, – подчеркну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Минимум раз в квартал должны приезжать бригады врачей из областных учреждений. До конца декабря необходимо организовать медицинский десант в Томари. Кроме того, нужно шире использовать телемедицинские консультации. В этом году цифровые технологии позволили провести около 8 тысяч дистанционных приемов по всей области. Из них в Томари всего 30. Этого недостаточно. Пациенты просто не знают, что из любого населенного пункта сегодня можно в присутствии своего лечащего врача проконсультироваться со специалистами из областных и федеральных клиник.

Жители Томаринского района также пожаловались на то, что некоторые медицинские работники не соблюдают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ую этику и допускают грубое отношение к пациентам. Губернатор отметил, что необходимо провести служебную проверку.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сегодня улучшают механизм обратной связи с пациентами. Людей, которые недавно побывали на приеме, просят оценить доступность и качество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Второй главной темой встречи стала дорожная. Жители района заинтересовались, когда приведут в порядок загородные трассы и дороги в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ах.

Благодаря передаче главной транспортной артерии Южно-Сахалинск – Оха в федеральную собственность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на ее ремонт и содержание теперь поступает из бюджета РФ. Высвободившиеся средства региональной казны направлены на дороги в районах. Глава региона отметил, что в числе приоритетных трасс Невельск – Томари – аэропорт Шахтерск.

Значительно выросло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на содержание дорог в районах. В этом году на эти цели предусмотрели 1,5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 в 6 раз больше, че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Это позволило выполнить рекордный объем ямочного ремонта – за несколько месяцев ликвидировали около 8 тысяч дорожных дефектов.

Томаринцы рассказали о плохом состоянии дороги по улице Строительной. На встрече стало известно, что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ее капитально отремонтируют. Для улиц Юбилейной и Пионерской планируется разработать проект капремонта.

Дачники попросили привести в порядок заезд к своим участкам. Отводы для воды отсутствуют, и после зимы или во время дождей проехать там невозможно.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ручил выполнить необходимые

работы в мае – перед началом дачного сезона.

На встрече удалось решить еще ряд частных вопросов томаринцев. Жители рассказали, что им приходится платить за отопление вдвое больше из-за того, что в домах закончился срок поверки счетчиков.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требовал в кратчайшие сроки поверить приборы учета и провести перерасчет для жителей.

За два часа общения с томаринцами губернатор успел ответить почти на 30 вопросов. По ним даны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поручения и установлены сроки исполнения.

В сахалинском селе открыли современную амбулаторию

Медицинское учреждение, рассчитанное на 50 посещений в смену, начало принимать пациентов в селе Ильинское Томаринского района. Амбулаторию оснастили оборудованием для проведения телемедицинских консультаций, а также предусмотрели в здании помещение для аптечного пункта. Ранее с просьбой ускорить открытие объекта к губернатору обращались местные жители. Сегодня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оверил работу учреждения.

– Качественные медицинские услуги должны быть доступны всем сахалинцам и курильчанам – вне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того, в каких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ах они проживают. Рад сообщить, что сегодня мы открываем современную амбулаторию в Ильинском. Уверен, в ней будет комфортно и пациентам, и работникам учреждения,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Здесь будут проходить телемедицинские консультации и приемы узких специалистов – сельчанам не придется лишнего раз ездить в райцентр. Это особенно важно для повышения доступности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в регионе.

В амбулатории оборудованы отдельные кабинеты для педиатра и терапевта. В учреждении смогут оказывать неотложную помощь, осуществлять диспансеризацию, а также проводить процедуры, включая вакцинацию – для этого предусмотрены специальные помещения.

– Строительство этого объекта было очень важным и своевременным, поскольку несколько лет назад в Ильинском заработала ГРЭС-2. В связи с этим в село на работу приехало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людей и возможности старой амбулатории, расположенной в приспособленном помещении, были исчерпаны. Новое здание отвечает всем современным требованиям. Мы очень довольны, – рассказала губернатору и.о. главного врача Томаринской ЦРБ Ольга Егорова.

В учреждении работают врач общей практики и три медсестры. В числе специалистов выездных врачебных бригад из районной больницы – окулист, хирург, кардиолог и гинеколог. По показаниям проводится осмотр эндокринологом и другими специалистами.

– Отдельная благодарность – за аптеку. Раньше приходилось заказывать лекарства из Томари ил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Теперь этого делать не придется, – сказала жительница села.

Отметим, в начале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в амбулатории начнут проводить физиопроцедуры и телемедицинские консультации, заработает аптечный пункт.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또한 율리아 구슬랴코와의 '사할린은 무엇인가?(What is Sakhalin?)'도 2위를 차지, 사할린 주민 막심 이와노브도 자신의 작품 '보건 및 휴양시설'을 잘 발표해 3위를 차지했다.

2021년 동영상 경연에는 동영상, 영화, 티비(TV) 보도, 비디오 블로그, 사진보도들 등 2천 개의 기획 동영상 작품들이 출전했다.

Сахалинские красоты завоевали девять наград конкурса "Диво России"

Финал VIII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фестиваля-конкурса туристических видео "Диво России" прошёл в Нижнем Новгороде с 7 по 9 декабря. Три "золота", приз зрительских симпатий, четыре "серебра" и одна "бронза" — таков итог участия островных видео в престижном конкурсе, который проводится в стране с 2013 года. Впервые в истории фестиваля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была представлена так массово — в финал прошла 21 работа.

Лучшими в своих номинациях были признаны ролики "Маяк Анива" и "Исторические объекты Сахалина" видеографа Константина Ефимова. Ещё одну награду высшей пробы принёс ролик Евгения Нездерова "Возвращение к морю", а приз зрительских симпатий достался видео "Косатки на маяке Анива" туроператора Анива Тур. Этот же ролик заслужил 2 место в номинации "Природа. Природные объекты". Туроператор "Адреналин-тур" получил два "серебра" — за

документальный фильм "Итуруп — в объятиях тепла" и видеоблог "Где-то рядом". Второго места также удостоилась работа What is Sakhalin? Юлии Гуслияковой. Успешно защитил свою работу и сахалинец Максим Иванов. Итог — третье место в номинации "Объекты отдыха и оздоровления".

Всего в 2021 году в конкурс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почти две тысячи проектов, среди которых видеоролики, фильмы, телерепортажи и видеоблоги, а также фоторепортажи.

클래식 음악 축제에서 미뉴에트와 탬버린이 어우러지다

12월 10일(금) 로지나 문화회관 공연장에서 '카메라타' 제 4회 시 고전음악축제가 열린 가운데 유즈노사할린스크 음악 학교와 예술전문학교 학생들이 참가했다.

올해 축제는 고전 무도곡과 가곡을 중심으로 펼쳐졌다.

관객석에서는 훌륭한 음악가들과 5호 아동예술학교 교사 인디기라 진콕스카야와 수렌 하차트란을 맞이하고, 이들은 유명한 작곡가들인 비발디, 코렐리, 필립 텔레만, 조셉 고세크, 조 반니 보논치니, 루이지 보케리니의 유명한 곡들을 연주했다.

공연장 객석 문이 열리자마자 조성된 무대는 고전적인 아름다움으로 장식돼 있어 고전음악세계의 분위기에 모두가 흠뻑 빠져들었다. 사회자가 공연에 앞서 17세기-18세기의 춤의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춤은 즐거움일 뿐만 아니라 사교의 도구이자, 가장 다양한

문제를, 국가적 문제들까지 해결하는 방법이기도 했다.

황홀한 저녁 음악인들과 함께 관객들은 훌륭한 작품들의 환상적인 연주 속으로 빠져들었다. 이러한 음악 프로그램은 사람들에게 역사적, 신비한 음악의 세계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Менуэты и тамбурины прозвучали на фестивале старинной музыки

10 декабря в концертном зале ГДК "Родина" прошёл IV городской фестиваль старинной музыки "Камерата" среди учащихся музыкальных школ и школ искусст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Фестиваль в этом году был посвящён старинной танцевальной и вокальной музыке.

В холле зрителей встречали прекрасные музыканты, преподаватели детской школы искусств №5 Индигира Зиньковская и Сурен Хачатрян, в их исполнении прозвучали знаменитые произведения Вивальди, Корелли, Телемана, Госсекса, Бонончини, Боккерини.

Как только открылись двери зрительного зала, все сразу погрузились в атмосферу мира старинной музыки — настолько красивым было оформление сцены.

Во вступительном слове ведущие концерта рассказали о значении танцев 1718 веков. Танец — это не только развлечение, но и средство общения, способ решения самых разных, даже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вопросов.

В этот замечательный вечер вместе с музыкантами слушатели погрузились в фантастическое исполнение прекрасных произведений. Такие концертные программы дают возможность соприкоснуться с историей и волшебным миром музыки.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Реклама

SAKH.COM • КРАСОТА И ЗДОРОВЬЕ

Попасть к врачу просто!

Врачи:

- Терапевт
- Гастроэнтеролог
- Хирург
- Невролог
- Гепатолог
- Эндокринолог

А также:

- Анализы
- МРТ
- Узи
- Рентген



Запишитесь на прием
med.sakh.com



<p>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p>				<p>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p>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з.ж. (주필) 배 워도리아</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2-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3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